

≡ 두근두근 ≡

친구들을 처음 만나요

독서 활동지



안녕, 친구들? 난 루이종이라고 해.
오늘 너의 하루는 어땠니?
난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하루를 보내며
두근두근, 콩닥콩닥! 많은 감정을 느꼈어.
우리 함께 '나의 마음'을 이야기해 보자!





아~ 잘 잤다!
 오늘 아침, 난 유치원 갈 준비로 바빴어.
 하지만 처음 만날 친구들과 선생님을 생각하며
 설레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지.



오늘 넌 어떻게 하루를 시작했어?

오늘 아침에 나는...

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.

너의 하루를 가장 기분 좋게 해주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해!

난 언제 가장 행복한 마음이 생기나요? 부모님, 선생님,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봐요!



만약에, 나처럼
유치원에서 친구들을 처음 만난다면...
너의 마음은 어떤 감정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?



기쁨



슬픔



시샘



두려움



화



수줍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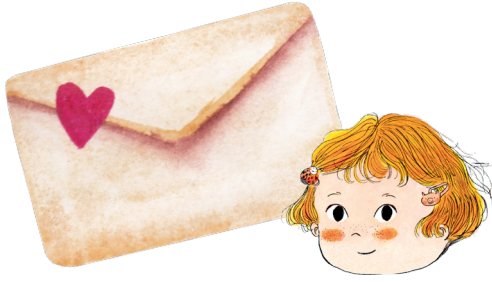


자긍심

친구들과의 기쁜 하루

나는 친구와 어떤 놀이를 함께할 때 기쁘고 행복할까요? 마음껏 상상하고 표현해 보세요.

루이종에게 보내는 용기 편지!



사실 오늘 나의 하루는
'용기'가 필요한 순간들이 많았어.
너희가 나를 응원해 준다면
내일은 더 용기를 내 볼 수 있을 것 같아!



낮선 유치원에 처음 갔을 때

루이종! 낯선 곳에 간다는 건
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야.
하지만 걱정하지 마!
모두가 널 좋아해 줄 거야.



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말할 때



혼자서 화장실을 갈 때

친구와 좋아하는 놀이를 할 때

부모님이 안아 주실 때



나의 마음속에 용기를 선물해요

너희는 누구와 무엇을 할 때

불끈불끈 용기가 생겨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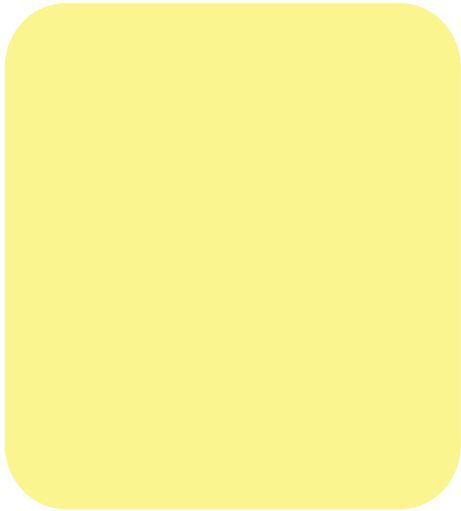
우리 마음속에 용기를 선물해 주자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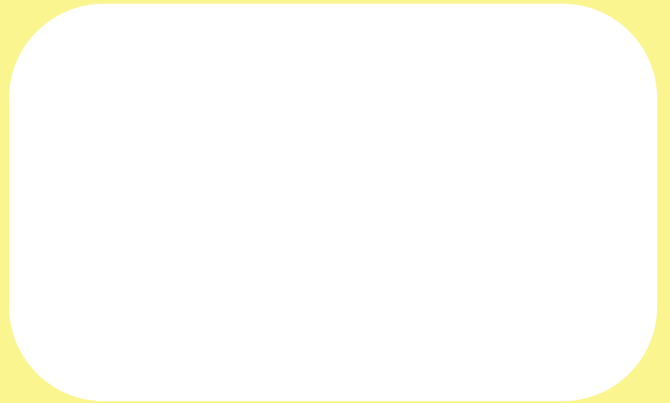
선물 상자 안에 그림이나 글자로 표현해 보세요!

이 세상에 하나 뿐인 소중한 나

내가 궁금한 친구들에게
나를 소개해 주자!



이건 바로 나야!



내가 행복해지는 놀이는...

내 이름은...

내가 자신있는 것은!!



이 세상에 하나 뿐인 소중한 나

여들아, 내가 유치원에 갔더니
신발장, 크레파스, 스케치북...
이곳 저곳에 내 이름이 붙어 있더라!
너희들도 이름표를 본 적 있니?

나만의 특별한 이름표를
만들어 보요!



만약 내 이름 글자를 잘 모른다면, 용기를 내서 어른들께 도움을 청해 봐.

